

제 VI 장

지역주민 설문조사

1. 주민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1. 주민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및 방법

|| 조사목적

- 본 주민설문조사는 공주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시민의 문화생활 및 문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또한 기존 관주도의 하향식(Top-to-Bottom)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수요를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Bottom-to-Top)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 조사방법 및 내용

-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설계·작성된 설문지를 무작위로 추출된 주민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방법의 하나인 임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기입 방식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설문지(self-administered) 방식을 채택하였다.
- 구시가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공주시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300부 모두가 유효표본으로 회수되었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모집단 : 20세 이상 공주시민
 - 조사기간 : 2011년 12월 22일~ 2011년 12월 30일

【표 VI-1】 주민의식조사 항목

조사 항목	주요 내용
구시가지 생활	이용시설, 대표문화, 만족도
구시가지 경제	경제활동, 상권 활성화, 필요시설
문화 활동	문화예술관람횟수, 관람 경로, 동반인
문화기반시설 이용	문화시설 이용 횟수, 이용만족도, 이용목적
문화이미지	구시가지 문화이미지, 발전요소, 공주시 역할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2) 인구특성 분석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150명씩으로 각각 50.0%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연령대로는 20~29세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26.3%, 40~49세 25.0%, 50~59세와 60세 이상이 각각 10.0%로 나타났다.



【그림 VI-1】 응답자 성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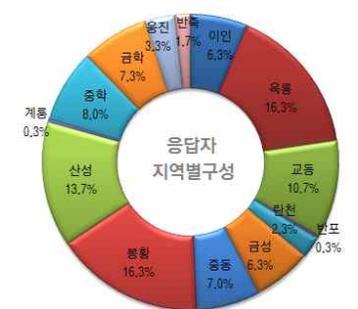


【그림 VI-2】 응답자 연령별 구성

-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23.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영업 22.4%, 가정주부 18.9%, 서비스직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옥룡동과 봉황동이 각각 16.3%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성동 13.7%, 교동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시가지의 중심지인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거주자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VI-3】 응답자 직업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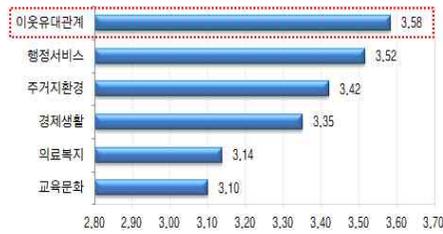


【그림 VI-4】 응답자 지역별 구성

2. 설문조사 결과

1) 구시가지의 생활

- 지역민의 구시가지 생활과 관련하여 생활만족도는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5점 만점에 3.58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서비스 3.52점, 주거지환경이 3.42점 등의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문화부문은 공주교대 및 공주사대부고 등 다수의 교육기관의 분포에도 불구하고 3.1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 구시가지에서의 주요 활동 및 이용시설로는 업무 및 생계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이 19.0%, 행정부문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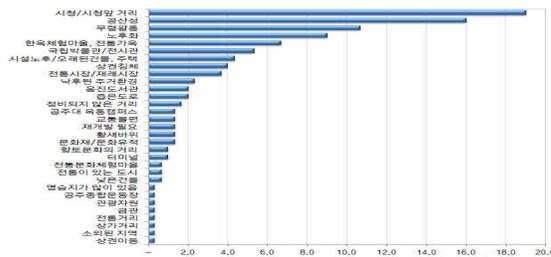
주 : 각 항목의 값은 Likert 5점척도(1점 : 전혀만족하지 않음, 5점 매우만족함)를 사용하였음

【그림 VI-5】 구시가지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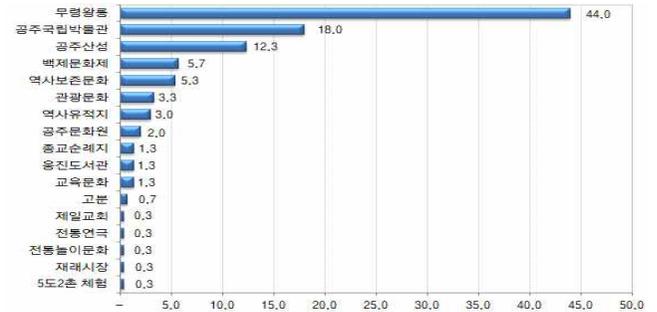
【그림 VI-6】 주요활동 및 이용시설

- 구시가지에서 연상되는 것으로는 공주시청 및 시청 앞 거리가 1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보였으며, 공산성(16.0%), 무령왕릉(10.7%), 박물관(5.3%) 등의 백제시대와 관련한 유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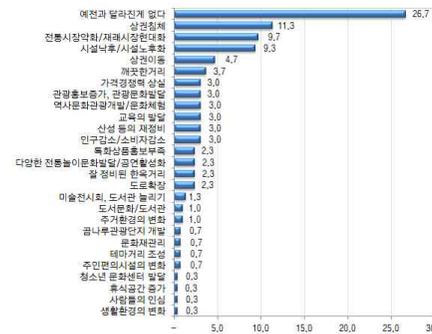
【그림 VI-7】 구시가지하면 떠오르는 것

- 구시가지의 대표문화 및 문화재로는 무령왕릉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주국립박물관(18.0%), 공산성(12.3%) 등의 순으로 지역의 문화유적지와 관련한 문화를 대표문화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8】 구시가지 대표 문화

- 과거 생활과 대비하여 가장 많이 변화된 것으로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전체 응답의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권침체가 11.3%, 전통시장 약화 9.7%, 시설노후화가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구시가지로 이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45.7%, 버스 31.7%, 도보나 자전거가 18.7% 등의 순으로 응답되어 주차시설 확충 부문에 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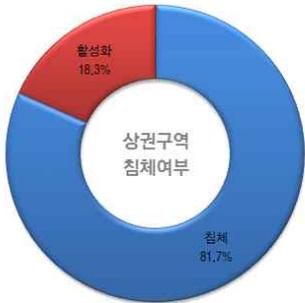
【그림 VI-9】 과거대비 변화



【그림 VI-10】 이동수단

2) 구시가지의 경제

- 공주시구가지 상권구역에 대한 침체여부는 81.7%가 침체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8.3%만이 활성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침체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중 침체원인에 대하여 30.2%가 상권이동을 꼽았으며 소비자 감소 21.2%, 시설노후화 13.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VI-11】 상권구역 침체여부



【그림 VI-12】 상권구역 침체원인

- 공주시 구시가지의 주민 경제활동에 대한 응답으로는 판매를 중심으로 한 상가활동이 2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전통시장과 공무원(교육포함)이 각각 16.7%씩으로 나타났다.
-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이 4.14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백제문화지역 이미지 홍보,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문화공연장 및 축제개최가 각각 4.07점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그림 VI-13】 주민 경제활동



【그림 VI-14】 상권구역 침체여부

- 구시가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경제활동 공간 조성이 4.15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문화예술향유 조성이 4.12점, 교육공간 조성이 4.0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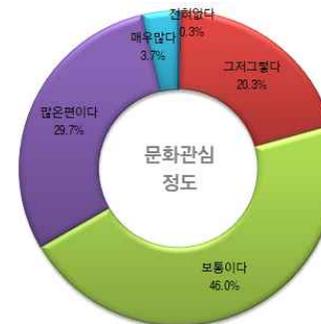


주 : 각 항목의 값은 Likert 5점척도(1점 : 전혀만족하지 않음, 5점 매우만족함)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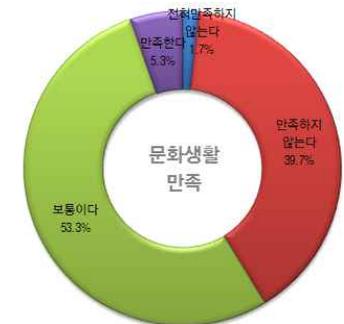
【그림 VI-15】 주민생활 필요시설

3) 문화생활

- 공주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46.0%였으며 많은 편이다 29.7% 등으로 대체적으로 관심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다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하지 않는다 39.7%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6】 문화관심 정도



【그림 VI-17】 문화생활 만족

VI. 지역주민 설문조사

- 공주시민이 관심이 높은 분야는 음악과 영상이 각각 22.7%씩으로 나타났으며 미술이 13.0%, 역사 10.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문화행사에 대한 참석횟수는 영화관(극장)이 연평균 1.67회로 참석률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재답사 0.95회, 축제행사 0.90회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8】 관심 분야



【그림 VI-19】 문화행사 참석횟수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소식 및 정보를 얻는 출처는 주변사람이 25.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 인터넷 21.3%, 텔레비전·라디오가 18.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활동을 위한 동반자 유형에는 가족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가 47.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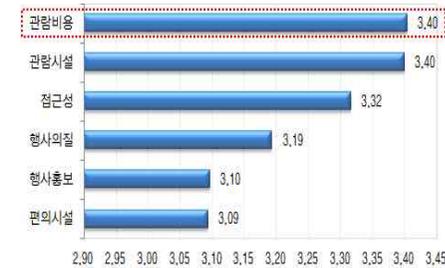


【그림 VI-20】 소식 및 정보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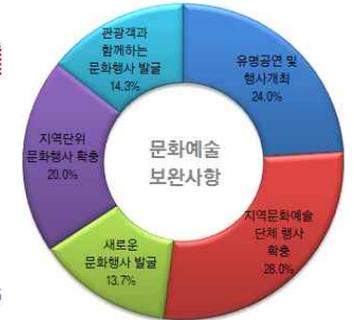


【그림 VI-21】 동반자 유형

- 문화예술 관람과 관련하여 관람비용과, 관람시설이 각각 3.40점으로 문화관람을 경험한 지역민의 경우 관람비용과 시설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문화예술을 위한 보완사항으로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확충이 전체응답의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명공연 및 행사개최가 24.0%, 지역단위 문화행사 확충이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I-22】 관람시 만족도



【그림 VI-23】 문화예술 보완사항

4) 문화시설 이용

- 공주시민의 문화시설 이용여부에 대한 응답은 99.7%가 이용한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단 0.3%만이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이용시설로는 산성문화공원 등 공원이 연평균 1.17회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무령왕릉 등 역사유적지가 0.63회, 공주국립박물관 등 박물관이 0.53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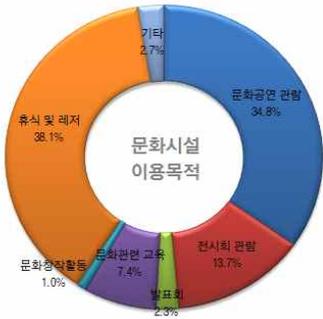
【그림 VI-24】 문화시설 이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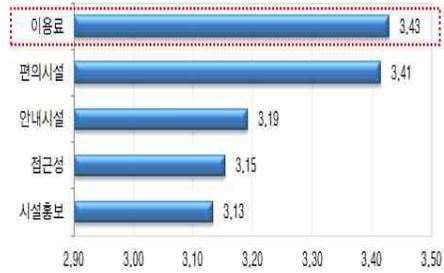
【그림 VI-25】 문화시설 방문 횟수

VI. 지역주민 설문조사

- 시설이용목적으로는 휴식 및 레저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공연 관람이 34.8%로 나타났다.
-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로는 이용료에 대한 만족도가 3.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시설이 3.41점, 안내시설 3.1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I-26】 문화시설 이용목적



【그림 VI-27】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구시가지의 문화시설이 충분한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43.3%가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29.3%가 충분한 편이다, 22.7%가 약간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 공연장(56.3%)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응답되었으며 전시관(11.7%), 문화교육기관(8.0%), 문화원(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I-28】 문화 시설 수



【그림 VI-29】 문화 시설 수

5) 공주시 문화전반

- 공주시민이 느끼는 지역의 문화이미지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9.7%로 가장 높았으며, 발전한편이라는 응답이 19.3%, 조금 낙후되었다는 응답이 19.0% 등의 순으로 지역 문화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중간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기대하는 발전 모습으로는 시장 및 상업시설의 중심지구로의 변화가 25.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행정시설 중심지구도 20.7%가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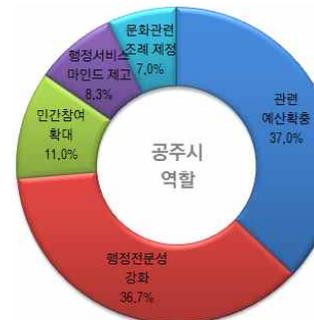


【그림 VI-30】 문화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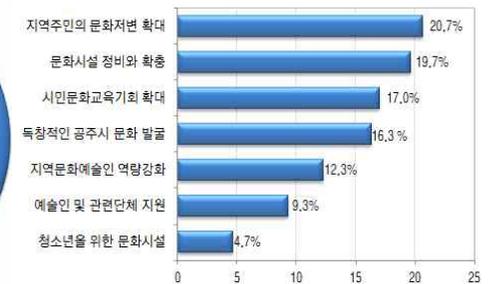


【그림 VI-31】 향후 발전 모습

- 문화발전을 위한 공주시의 역할로는 관련예산확충이 3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행정전문성 강화(36.7%), 민간참여확대(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저변 확대가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시설정비와 확충이 19.7%, 시민문화교육기회 확대 17.0%, 시민문화교육기회 확대가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I-32】 공주시의 역할



【그림 VI-33】 문화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6) 기타응답

|| 독창적 문화 발굴

- 공주시 대표적 문화 발굴, 독창적 문화 홍보, 공주를 대표하는 음식 만들기, 공주의 한옥마을 특성 홍보, 전통문화체험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시설 재정비, 문화체험관 늘리기, 내실 있는 축제 개최, 축제아이템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의 독창적 문화를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편의시설 확대

- 모든 유적지내 문화해설사 배치, 유적지내 편의시설 확충, 도로 안내시설 확충, 교통편의시설 확충, 주민센터내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청소년 박물관, 도서관 건립, 공연장건립 확대,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확보, 극장 및 영화관 증설, 체육공원 등의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 문화행사 확대

- 저소득층 문화시설 및 공연 무료제공,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발굴, 문화의 날 행사 추진, 미술전시회 및 미술행사 확대, 문화원의 교육행사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래시장 활성화

- 재래시장 앞 도로 정비, 상가거리 정리를 통한 이미지 개선,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활성화하도록 하며 산성시장 지붕 정비 및 재래시장 내 쇼핑카드 도입을 통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한다고 응답하였다.

|| 기타

- 기타 응답으로는 오래된 주택 보수지원, 고도제한 해제, 강변로 정비, 농특산물 상설매장 개설, 교육도시로서 학교의 다양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연결다리 확장 등이 있었다.

3. 시사점

|| 구시가지 생활

- 구시가지 생활은 이웃주민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구시가지에서의 주 활동이 업무 및 생계활동을 위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역의 연상되는 이미지는 공주시청 및 시청 앞 거리와 백제문화와 관련한 유적지를 꼽아 연상되는 이미지를 일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 이에 따라 지역이 지닌 고유 이미지인 백제를 살리되 상권의 중심지 역할 등의 현재까지 지속되어져 온 이미지를 결합하여 공주 구시가지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여야 한다.

|| 구시가지 경제

- 구시가지의 상권은 침체되었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침체 원인은 상권이동으로 나타나 상권이동에 따른 지역의 경제활성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및 백제문화지역 이미지 홍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공간 및 지역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문화생활

- 공주시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며 음악과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관람 후 만족한 요소로는 관람비용과 관람시설로 꼽음에 따라 향후 문화예술을 위한 보완사항으로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확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시민수요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적절한 행사 개최가 필요 할 것이다.

|| 문화시설 이용

- 공주시 문화시설 이용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균 이용률이 낮아 시민수요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보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공연장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에 따라 현 공주문예회관 이외의 상설공연이 가능한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 공주문화 전반

- 시민들이 느끼는 공주의 문화이미지는 발전이나 낙후가 아닌 중간 이미지로서 시장 및 상업시설의 중심지구로서 문화적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지역주민의 문화저변 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백제라는 이미지와 상업중심지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발굴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